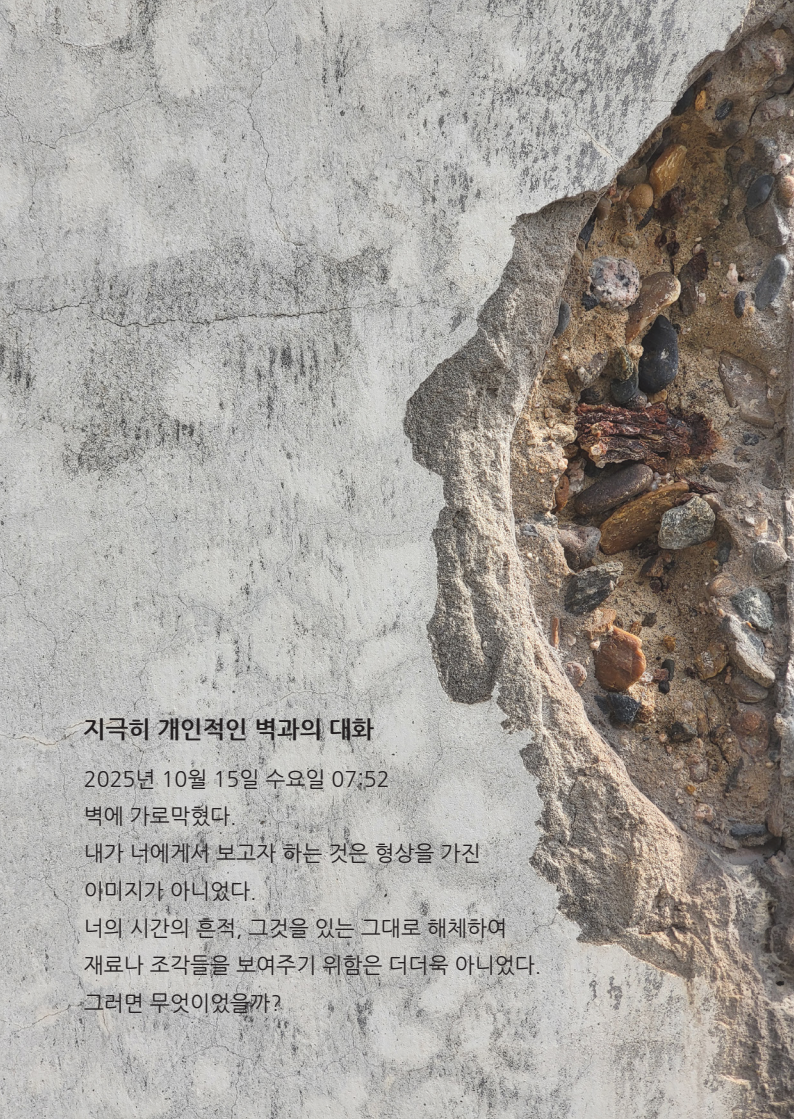


나랑 벽보러 가지 않을래?

벽의 문화적 채집기



지극히 개인적인 벽과의 대화

2025년 10월 15일 수요일 07:52

벽에 가로막혔다.

내가 너에게서 보고자 하는 것은 형상을 가진
이미지가 아니었다.

너의 시간의 흔적, 그것을 있는 그대로 해체하여
재료나 조각들을 보여주기 위함은 더더욱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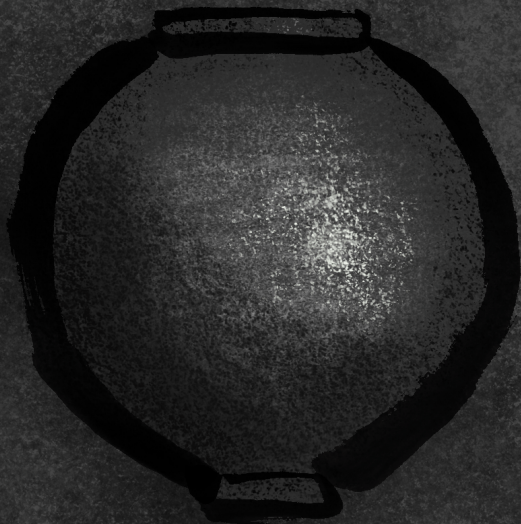
그러면 무엇이었을까?



처음에는 단순히 예술작품처럼 아름답게 느껴졌어. 그 선유도 공원에서 본 벽 말이야. 오랜 세월이 벽에 남긴 무늬와 나무가 함께 오버랩되어 내 눈에만 보이는 액자가 벽에 걸렸지. 지상부에서 약간 내려간 신비한 공간의 느낌 때문이었을까? 그 벽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 사람이 없어서 느긋하게 감상할 수 있었지. 이날은 30도가 웃도는 날씨여서 감동의 눈물 대신 땀이 뻘뻘 났어. 발등에 쏴리 자국까지 남았지. 사진을 찍어 놓고 아주 흡족했어. 한 건 건진 사진작가처럼 말이야.

‘산으로 간 배’ 첫 출항을 하고 두 번의 과제를
하는 동안 내 시선은 여전히 자연에 머물렀지만
이 벽의 느낌은 사뭇 달랐다. 시각적으로만 나를
사로잡은 것이 아니었다. 그 날 이후 비슷한 느낌의
벽을 나도 모르게 찾아 헤매고 있었기 때문이다. 왜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된 것일까? 선유도 공원의 그 벽이.

그래 처음으로 되돌아가 보자. 너에게서 본 비슷한 느낌을 보았던 날, 그것을 전율하며 눈물과 함께 처음 만났던 그 날로. 네가 그 자리에서 오랜 시간 버티며 쌓아 온 역사가 있는 것처럼 나에게도 그런 버팀의 시간이 있었지. 그걸 다시 끄집어내어 말한다는 건 켜켜이 잘 쌓이며 아물고 있는 것들을 해체하고 분해해서 피를 토해내는 것과 같아. 그러고 나면 과거로 돌아간 내 몸은 한동안 그때의 아픔을 다시 앓아야 하지. 그래서 난 과거를 곱씹는 버릇을 버렸어. 너의 몸에 기생하는 이끼와 곰팡이를 채취하려고 시도하지 않는 것은 너에 대한 배려라고 해 두자. 끄집어내면 너도 나처럼 힘들 테니까. 한 부분을 내어준다는 건 굉장한 거잖아. 조각이든 냄새든 말이야. 형태가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우리들의 마음 같은 것말이야. 그 날을 다시 얘기해 볼까? 그 검은색 달항아리를 만났던 날. 이제 너무 얘기해서 지겹겠지만 잘 들어줘. 이 느낌이 어떤 건지 알아야 너와 느낌이 통한 이유를 알아낼 수 있으니까.



머리가 텅 빈 상태에서 통찰로 찾아온, 몸이 기억하고 있는 그날을 내 정신도 또렷이 기억한다. 2024년 5월 어느 날, 최영욱의 검은색 달항아리 그림 앞에 멈춰선 시간. 몇 초였을까, 몇 분이였을까. 그 검은색 달항아리 안에서 내 심연과 보이지 않는 소용돌이가 일었다. 아니, 온몸이 바르르 떨리고 눈물이 흐르는 처음 경험하는 느낌의 전율이었다. 목구멍에서 검은색 응어리가 올라왔다. 내가 이 경험과 선유도 공원의 벽을 같은 감정을 가지고 바라보고 응시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그리고 여의도중학교의 벽을,





달항아리

정정은

커다란 검은색 달항아리
흐릿한 경계
탕 빈 듯하다.

어둠 속을 헤매는 시선
잠시 후
뚜렷이 보이는
그 안의 나와의 조우

조용히 흐르는 눈물
검은 어둠의 끝없는 폭풍

마침내
영컨 실타래의 응어리가
풀어진다.

2024년 5월 22일. 그 때 받았던 느낌을 써 놓았던 시야. 두 가지 사건의 연관성을 추적하다가 이 시를 쓴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갔지. 흐릿한 경계. 너와 나무 사이의 흐릿한 경계에서도 같은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 나만 발견한 숨겨진 보물을 찾은 기분이었지. 시각적으로도 아름다웠지만 내가 너에게 천착하게 된 건 아마도 내 인생에 관한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 놓았던 그 소용돌이의 전율을 잊을 수 없어서였을지도 몰라. 그 날 이후로 난 결코 가볍지 않은 어린아이로 변모했거든. 한 사람의 인격 자체를 인정하게 되었고 시기, 질투, 분노가 사라지고 밝아졌지. 내 안의 다른 성향인 내가 용기를 내는 일이 늘어났고 서슴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걸 표출하는 일도 잦아졌어. 나조차도 깜짝 놀라는 순간들이었지. 타인의 시선이나 자기검열 때문에 스스로 통제했던 벽 안에 갇혀 있던 나는 해방감에 신이 났지. 그냥 모든 것이 재미났어.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아. 모든 걸 내려놓고서야 더 많은 것을 얻었지. 소통의 부재 속 가로막혔던 벽에서 아이러니하게도 너의 아름다움을 발견한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보이지 않는 내면의 감정이었고 심리와 자연과 사람의 연결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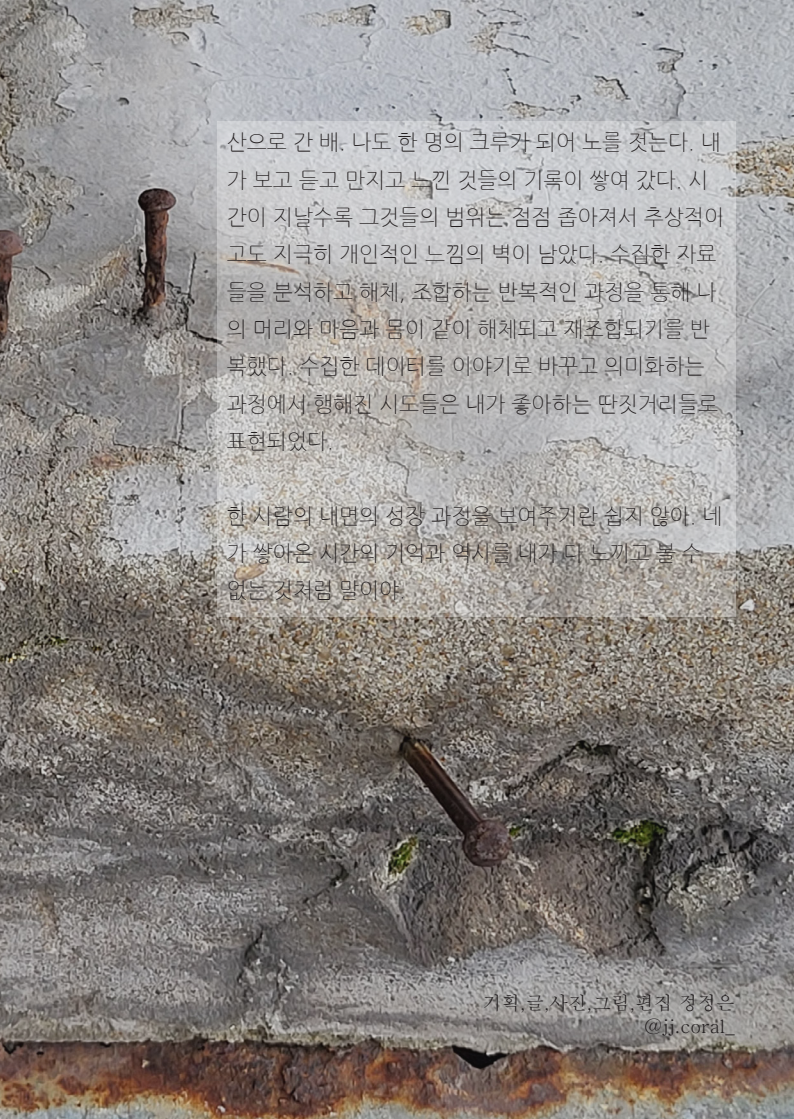
The image shows a close-up of a weathered wall. The surface is light-colored, possibly off-white or light gray, with a rough, textured appearance. There are several dark, irregular stains and patches of discoloration, particularly along the right side and bottom. A prominent horizontal crack runs across the middle of the frame. The overall tone is somewhat somber and aged.

벽이 지나온 시간의 흐름은 나와 이웃, 나와 지역을 잇는 매개가 되는
보이지 않는 선(線)이다.





너는 나(개인)라는 하나의 존재를 다른 세계와 연결하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 내가 나타내는 감정이나 서는 위치에 따라 빠르게 직선을 만들기도 하고 느리게 곡선을 만들기도 하면서 그 선을 차곡차곡 너와 나의 역사로 쌓아가는 거지.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펼쳐가는 과정을 너는 너의 방식대로 기록한 거야. 그 안에는 너의 발자국 소리도 어떤 이들이 누군가를 힘담하는 소리도 남몰래 뛰는 방귀 냄새도 스며 있을 거야. 부서지고 갈라지고 아물며 너의 의미를 만들어 낸 거지. 나는 그걸 조용히 관찰하면서 검은색 달항아리를 봤을 때처럼 내가 네 안에 들어갔던 것 같아. 내가 너를 관찰하면서 느낀 감정들을 먹으로 표현해 본 것, 너의 역사를 찍은 것 그리고 나의 사고와 과정들과 너와의 대화를 글로 남긴 것. 이것을 또 다른 개별 존재들이 고유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또 각각의 어떤 의미를 만들어 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들이 만들어낸 의미를 품은 이야기는 또 다른 이에게 영향을 미칠 거야. 우리는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 작은 공간을 만들고 또 만들고 만드는 거지.



산으로 간 배. 나도 한 명의 크루가 되어 노를 젓는다. 네
가 보고 듣고 만지고 느낀 것들의 기록이 쌓여 갔다. 시
간이 지날수록 그것들의 범위는 점점 좁아져서 추상적이
고도 지극히 개인적인 느낌의 벽이 남았다. 수집한 자료
들을 분석하고 해체, 조합하는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나
의 머리와 마음과 몸이 같이 해체되고 재조합되기를 반
복했다. 수집한 데이터를 이야기로 바꾸고 의미화하는
과정에서 행해진 시도들은 내가 좋아하는 만짓거리들로
표현되었다.

한 사람의 내면의 성장 과정을 보여주거란 쉽지 않아. 네
가 쌓아온 시간의 기억과 역사를 내가 다 느끼고 볼 수
없는 것처럼 말이야.

이 프로젝트는 2025 문화도시 영등포 YDP크리에이터 이웃문화영등포문화대 양성과정
<산으로간배 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영등포문화재단